

# 개같은 시대, 작가들의 휴식처 '대교'

글 · 김학민 hakmin8@hanmail.net

보신탕집 '대교' 전경



1970, 80년대 그림쟁이들의 단골집이 인사동의 '부산식당' 이었다면, 글쟁이들의 아지트는 서울 마포 공덕동의 '대교' 였다. '대교' 가 글쟁이들의 아지트가 된 출발은 고 조태일(1941~99) 시인 때문이었다. 조태일 시인은 70년대 중반부터 서울 오장동에서 창제인쇄공사라는 납 활자 조판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오장동 일대의 집세가 너무 비쌌고 또 창비, 한길사 등 주요 거래처가 마포 부근에 있었기 때문에 1982년 비교적 허름한 동네였던 마포로 인쇄소를 옮겨 온 것이다.

창제인쇄소는 박정희 유신정권 시절은 물론 1980년대 전두환 독재정권 하에서도 창비, 한길사, 풀빛, 동녘, 돌베개, 학민사 등의 '불온한' 사회과학 서적 원고들을 조판해 주던 거의 유일한 곳이었다. 그래서 사장인 조태일 시인 방에 가면 언제나 창비의 이시영 편집장, 실천문학의 송기원 주간, 풀빛의 채광석 주간 등이 출근하다 시피 있었고, 나병식, 이해찬, 김학민 등 학생운동 출신 구명가게 출판사 사장들도 자주 볼 수 있었다.

창제인쇄소에서 공덕시장 쪽으로 가면 지금은 없어진 '쇼도 보고 영화도 보는' 재, 재, 재개봉관 경보극장이 있었고 그 옆 골목으로 조금 들어가면 산낙지, 세꼬시, 매운탕을 팔던 '대교나루터'란 술집이 있었다. 조태일 시인과 문인, 출판인들은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집에서 죽었다. 목포가 고향인 이 집 주인 오금일 씨는 당시 20대의 예쁜 아가씨 티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드나들던 사람들은 너나 내나 그녀를 애인이라고 부르며 수작을 걸었다. 오금일 씨의 회고다.

"조태일 시인이 동네방네 자기 애인이라고 떠들고 다녔지요. 그때 제가 식당을 연 게 스물 아홉살인데, 주인 노릇하기에는 너무 어리다고 생각했어요. 거의 매일 대교에 살다시피했던 김정환 시인과 같이 제가 54년생인

데, 살짝 나이를 두 살 올렸지요. 그래서 김정환 씨는 지금까지도 나를 누나라고 불러요. 이해찬 총리는 김정환 씨와 친구이지만 52년생이잖아요? 이해찬 씨도 김정환 씨를 따라 나를 보고 누나, 누나 했어요."

그러나 조태일 시인을 고정 축으로 해서 전두환 정권에 대한 각계 반체제 인사들이 주야장창 죽치고 앉아 박정희, 전두환 욕이나 하고 있으니 이 집이 제대로 장사가 될 수 있었겠는가? 더구나 조 시인을 비롯하여 나잇살이나 먹은 축들은 다투어 오금일 씨를 자기 애인이라 하며 손이라도 잡으려고 하니, 일반 손님들이 옆에서 보고 얼마나 눈꼴이 시였을까?

"조 시인을 따라 박범신, 천상병, 김남주, 천승세 같은 작가들이 많이 왔지요. 젊은 층은 단연 김정환, 김사인, 채광석, 황지우, 김도연 등이 자주 왔고요. 조태일 씨는 점심 먹으러 와서는 밤 12시에 간 적이 수도 없이 많았지요. 그러니 차츰 일반 손님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어요. 마침 둘째 애 출산도 다가오고 하여 1년 만에 낙지집을 접고 제 친구를 시켜 카페를 열었어요. 그런데 카페도 9개월 만에 문을 닫았지요."

맛다. 그 친구가 영애 씨였지. 착하다 착한. 허름한



'대교' 사장 오금일 씨

반 칸막이에 한 겨울 추위를 조그마한 석유난로로 견뎠던 공덕동 뒷골목의 변두리 카페 ‘대교’. 나도 조태일 시인과 그곳에 여러 번 갔었다. 그러나 매일 저녁 마른안주에 병맥주 몇 병 시켜놓고 침묵을만 튀기고 있으니 장사가 제대로 되었겠는가? 영애 씨는 특히 이시영 시인과 ‘친하게’ 지냈던 기억이 나는데, 카페를 그만둔 후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고 한다.

1983년, 그 유명한 조태일 시인의 ‘방배동 장독대 민주화 투쟁사건’이 있었다. 그날도 대교에서 밤늦게까지 술을 마신 조 시인은 택시를 타고 가까스로 방배동 자택으로 귀가했다. 그리고는 장독대 위에 올라가 큰소리로 동네방네 들으라고 ‘전두환은 물러가라’고 외쳤다. 이 ‘민주화 투쟁’은 즉각적인 이웃의 신고로 조 시인이 경찰서에 끌려감으로써 진압되었다. 그러나 경찰도 술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이 사건을 사법처리하기가 좀 무뎠는지 그냥 고성방가 경범죄로 구류 처분했다.

1974년에 일어난 민청학련사건은 한국 민주화운동사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 사건으로 조사받은 사람은 총 6천여 명이었고, 1천여 명이 구치소나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었으며, 이중 256명이 기소되어 군법회의에서 최고 사형에서 무기, 20년, 15년, 10년 등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형을 선고받은 8명을 제외하더라도, 무기징역을 20년으로 치면 이들이 받은 총 형량은 4천년이 넘는 건국 이래 최대의 공안사건이었다.

당시 박정희 독재정권은 중앙정보부와 군부를 앞세워 반독재 학생운동과 민주화 세력을 이 사건을 빌미로 뿌리 뽑으려 계획했다. 그런데 민주세력을 발본색원하겠다는 박정희 정권의 의도와는 달리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사건으로 인해 이후 한국의 민주화운동은 질과 양 모두에서 크게 발전하고 국제적 연대까지 맺게 되었

으니, 역사가 하는 일이란 참으로 기묘하다. 우선 주요 대학 학생들과 우리 사회 대표적인 각계 민주인사들을 한 사건으로 묶어 구속시킴으로써 민청학련사건 자체가 연대운동의 성격을 띠게 된 것이다. 이는 민청학련의 지도부가 전혀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함께 재판받고 함께 감옥생활을 하면서 학생들과 민주화 원로들은 자연스럽게 유대관계를 갖게 되고, 이는 70년대 후반 유신반대 운동과 80년대 전두환 군사정권과의 싸움에서 끈끈한 조직력을 갖추게 만들었다.

살벌했던 1974년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자 전국 각지에서 열화와 같은 구속자 석방운동이 벌어졌다. 재판을 통해 구속자들의 고문수사와 조작혐의가 폭로되자 국내외 여론은 들끓기 시작했고, 이는 대학가의 대규모 시위와 사회 각계의 투쟁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고비고비마다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왔던 단체 두 개가 탄생했다. 천주교의 정의구현전국사제단과 작가들의 자유실천문인협의회 출범이 그것이다.

박정희 독재정권에 대한 작가들의 집단적 의사 표출은 1974년 1월 7일 백낙청, 이호철, 고은, 황석영, 신경림 등 61명이 유신체제를 반대하는 개헌지지선언을 발표한 데서 시작된다. 이후 소설가 이호철 등이 소위 문인간첩단사건으로 구속되고, 김지하 시인이 민청학련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음으로써 문인들의 현실참여는 가속화 집단화되고, 이는 1974년 자유실천문인협의회(자실)의 창립으로 귀결된다.

이후 자실은 유신독재에 저항하는 민주화운동에 적극 참여하면서 한편으로는 작가로서 민중, 민족의 지평을 지향한 문학적 성과를 일구어 내는데도 노력했다. 그러나 1980년 광주를 피로 물들이고 집권한 전두환 독재체제 하에서의 혹독한 탄압으로 다른 부문운동들과



80년대 '자실' 사무실이 있었던 한일다방 자리



'자실' 활성화를 이끌었던 홍일선 시인

마찬가지로 자실의 활동도 잠시 휴지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1984년 자실은 마포경찰서 건너편 골목 안에 최초로 사무실을 열었다. 홍일선, 김정환, 황지우, 김사인, 김도연, 채광석, 정규화, 박승욱 등 '시와 경제' 동인들이 주축이 되어 '자실 활성화'의 논의를 이끌었다. 당시 영등포시장에서 곱창장사를 해 '경제'가 좀 나은 홍일선이 200만원을 마련해 사무실 보증금이며 전화, 집기 등을 마련했다. 그리고 밖으로는 당시 신협중앙회를 그만둔 채광석의 퇴직금으로 충당했다고 말을 맞추었다.

창제인쇄공사, 창비, 실천문화과 더불어 자실 사무실이 마포에 자리 잡으면서 바야흐로 '문학운동의 마포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다. 그리고 자실 사무실이 자리를 잡던 그 즈음 참여문인들의 아지트인 카페 '대교'도 새롭게 변신하니, 오늘의 보신탕집 '대교' (전화 716-7868)가 27년 전 오금일 씨의 낙지집 바로 그 자리 그 집이다. 오금일 씨는 회고한다.

“보신탕집으로 전환한 후에는 상도동계와 동교동계가 연합한 ‘민주’ 정치인들이 자주 왔지요. 최형우, 김원기, 김동영 같은 분들이지요. 87년 직선제 개헌투쟁

회의도 우리 집에서 많이 했어요. 권노갑, 김동영 두 분이 최류탄 잔뜩 맞고 들어와 보신탕 한 그릇 드시던 것도 생각나네요. 1990년 3당합당 때 민자당에 참여하지 않았던 ‘통추’ 모임도 대부분 대교에서 했어요. 통추 멤버였던 고 노무현 대통령도 자주 오셨어요. 그 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기억에 남아 있지요.”

2002년 여름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였던 시절, 나도 '대교'에서 노무현 후보, 몇몇 사람들과 보신탕을 같이 먹은 적이 있다. 당시 노 후보는 수구언론의 집중포화를 맞고 지지율이 바닥을 기고 있었다. 그 자리는 노 후보와 함께 그 원인을 분석하고 대응을 모색하는 자리여서 '청문회' 비슷하게 분위기가 흘러가 언쟁도 하고 하여 서로가 불편해 했던 기억이 난다.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하니 또다시 절명시와 같은 그의 유서가 떠올라 얼른 인터뷰를 끝내 버렸다.

글 김학민 | 민주화운동으로 수 차례 투옥된 바 있으며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을 역임하고 현재 음식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blog.naver.com/hakmin8)